조계종 최고 품계 대종사·명사 품서식 봉행

10월 21일 동화사서 비구66 · 비구니16명 품수

82명 역대 최고 수준 품수
진제 대종사 · 법계증 전달
"대열반 향한 정진" 발원도

대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계종 대종사 · 명사 품서식이 봉행됐다. 비구 스님 66명과 비구니 스님16명이 대종사와 명사에 품서됐다.

조계종은 10월 21일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 앞에서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품서식은 △고불 △헌화 △법계증 및 가사수여 △가사정대 △불자(拂子)봉정 △여의(如意) 증정 △법어 △축사 △발원문 순으로 진행됐다.

품서식에는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 법계위원장 원경 스님,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품서를 받는 스님과 시자 스님 외 참석이 제한됐다.

이번에 대종사, 명사 법계 품서를 받은 스님은 총 82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이다. 이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품서식이 연기됐고, 특별전형 등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는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수자를 대표해 지안 스님과 영운 스님에게 법계증을 전달했으며, 종단 최고 법계를 상징하는 가사는 의현 스님, 명사 스님, 일법 스님에게 수여됐다. 대종사 · 명사 스님들은 정대한 뒤 가사를 수했으며 이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자를 대종사를 대표해 현봉 스님에게 전달했고 여의는 도문 스님에게 수여했다.

종정 진제 대종사는 "금일 대종사 · 명사 법계품서에 임하는 용상고덕(龍象高德) 스님들께 사부대중과 더불어 찬탄하고 만심환희(滿心歡喜)한다"며 "대종사와 명사는 일평생 올곧은 수행으로 지혜와 덕성을 두루 갖춤이니, 이는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이요, 만고의 귀감"이라고 축하했다.



조계종은 10월 21일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 앞에서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이어 "작금의 인연은 임운자재(任運自在)의 한가로움을 누리심과 동시에 종강(宗綱)을 바로 세워 부처님 수행가풍을 다시금 부양해 정법구주(正法久住)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도들의 사표이신 대종사 · 명사들께서는 종강을 바로 세워 대중이 화합하고 조계종풍을 선양하는데 일심으로 정진해 오셨다"며 "세상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법의 당간지주를 드높여 불조의 혜명이 면면히 계승될 수 있도록 후학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종사 · 명사 스님들을 대표해 지명 스님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오늘 이곳 팔공산 동화사에서종단 최고 법계를 품수하는 대종사 비구들과 명사 비구니들이 오랜 세월 선근인연으로 세간의 온갖 번뇌를 여의고 지금 이 법석에서 큰 서원을 발하옵고 역대전등의 정통법인을 받으려 한다"며 "또한 이로부터 바다같이 한량없는 불법의 진실한 뜻 깊이 수지하여 광도중생의 대원과 번뇌불생의 대열반에 이르도록 정진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종사 · 명사 법계는 조계종에서 출가한 스님에게 최고 법계이다. 승랍 40년 이상의 스님에게 수여되며 수행력과 지도력을 상징한다.

조계종 내년 예산안도 동결…백만불사 가시화

10월19일 교구본사주지회의 종회 앞두고 주요 사업 보고

조계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찰의 어려움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2022년 예산안도 2021년 기준으로 동결했다.

조계종은 10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원행, 조계총무원장)를 개최하고 △2022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대종사 · 명사 법계품서 관련 보고의 건 △국 · 시립합창단 종교편향 현황조사 결과 등 보고의 건 △종단 주요불사 및 백만원력결집불사 경과보고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7명 중 대리참석 3명 포함 25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은 대부분 교구와 사찰에서 납부하는 분담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찰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입여건을 고려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하기 위해 중앙종무기관의 각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통해 2021일 본 예산 대비 동결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10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스님은 "코로나19와 정치일정으로 혼란스럽지만 불교계는 종단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솔선수범과 함께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고 있다"며 "총무원 교역직과 일반직 모든 종무원들을 대표해 교구본사주지스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단 주요사업인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불교요양원 건립불사 등 10건에 대한 현황 보고도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에도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불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현재 요사 및 대웅전 내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2년 5월까지 외부공사를 마무리하고 단청 공사와 수미단 등 내부 장엄불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9월~12월 경 대웅전 준공식 및 점안법회 봉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육 · 해 · 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는 10월 24일 교육관 준공법회에 이어 2022년 6월 대웅전을 완공할 예정이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부지에 건립 중인 불교요양원 불사는 현재 부지와 관련한 서류상 절차는 상당부분 마무리하고 2022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원행 스님은 "내년에는 종단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목적불사가 회향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종단 목적불사가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논의체계 필요"

주호영 의원, 10월22일 원행 스님 예방서 피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공원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 제한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현재 윤석열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10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사진〉 주 의원은 "매 선거때마다 불교현안이 불교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걸지만 이행률이 낮아 개선이 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이행률 점검 및 근본 문제에 대한 논의 등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불교공약은 각 후보들이 선거때 발표하지만 정작 국정과제로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이 때문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사찰들을 국립공원과 도시공원 등에 편입시키면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부작용과 논란, 전통사찰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규제법령 등 불합리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핵심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현안들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 가동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원행 스님은 "불합리하고 중첩적인 각종 규제 법령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여전히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제도 · 복지 · 포교 현주소서 발전방안 도출

태고종, 10월 22일 미래탐구 학술세미나

발제자들, 현황분석 · 제언
종학토대 · 인재양성 필요
법계 · 전법사 제도개선도

태고종이 현재의 종단 안팎의 문제점과 현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이 10월 22일 개최한 '한국불교태고종의 미래지향성 탐구' 주제 학술세미나는 '태고종 정체성 탐구'를 위한 세 번째 법석으로, 각 분야별 발제자들이 현재의 모습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애정 어린 제언을 쏟아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방룡 교수는 '태고종의 나아갈길_보살불교와 포교의 미래'란 주제발제를 통해 태고종학의 정립, 그리고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불교학자의 입장에서 태고종 현주소를 말한다면 뚜렷한 '종학'이 정립되지 않는 종단으로, 태고종학의 정립 없이 밝은 미래를 기대하긴 힘들다"며 "이제 타고종의 종지와 교리, 운영과 포교 등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교단적으로 태고종



태고종이 10월 22일 개최한 '한국불교태고종의 미래지향성 탐구' 주제 학술세미나.

학을 위해 진력하는 불교인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물론, 인적 인프라의 구축과 활동을 통해 법을 펼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점검은 물론, 나아가 태고종의 육부승 제도를 토대로 전법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태고종 사회복지사업의 현 단계와 과제'를 주제로 태고종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짚었다. 조 교수는 각 종단의 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현황을 토대로 태고종 복지법인 및 시설수가 종단 규모에 비해 적은 이유를 분석하고 향후 사회복지원이 종단 차원의 복지중심부로서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태고종중앙복지재단을 사회복지원 직속으로 편입해 사회복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용월사 주지 법우 스님의 '태고종의 출가제도와 승가교육 체계' 이자랑 동국대 교수의 '동아시아 불교에서 계율의 수용과 발전_범계 판단의 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제점숙 동서대 교수의 '근대 조선불교의 승려 결혼에 대한 논쟁', 아오노 미치히코 교수의 '일본불교에 있어 승려의 대처'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태고종 교육원장 법안 스님(안심정사 회주)을 좌장으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제3차 학술세미나는 지난해와 같이 우리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통, 적통을 바로 이어오고 있는 태고종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그 바탕위에서 본 종단이 앞으로 지향해나가야 할 길을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며 토론하는 자리"라며 "오랜 내홍과 분규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이제 모든 종도가 안정된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종단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술세미나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열어 한국불교의 전통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태고종과 더불어 한국불교가 더욱 발전하고 중흥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종단은 자부심과 의무감을 가지고 더욱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정청래 의원 제명 촉구" 확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 10월 19일 비판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 공식 사과도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비하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폄훼한 정청래 의원에 대해 조계종 27개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당적 제명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발언은 당의 입장과 다르며 부적절하다"며 조계종에 공식사과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10월 19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정청래 의원에 대한 제명과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송영길 대표와 면담중인 스님들.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불교계 노력을 폄훼하고 불교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책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정청래 의원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매도했다"며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정청래 의원의 의도적인 사실왜곡과 호도, 그리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취급한 발언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과 관련, "의원 개인의 발언일 뿐 당의 입장과 다르다"며 공식 사과했다. 송영길 대표는 10월 20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들의 항의방문으로 마련된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수석부회장 초격 스님(봉선사 주지)과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 등 교구본사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기획실장 삼혜 스님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외에 김영배 최고위원과 박완주 정책위 의장, 이원욱 정각회장, 한병도 원내부대표 등이 배석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사 · 봉은사 · 보문사 직영사찰 주지 연임

10월 22일 임명장

조계종 직영사찰인 서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강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이 연임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0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현, 원명, 선조 스님에게 직영사찰 관리인 임명장을 수여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오셨는데 어려운 소임을 다시 맡게 되셨다"며 "종단과 함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불교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직영사찰의 본역학은 사찰 안정과 전법포교, 종단 외로하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도 "직영사찰 주지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원장 스님을 잘 모시고 종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은 "기도도량인 보문사를 잘 살펴 열심히 기도하며 살겠다"며 "종단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종단 소임자들도 직영사찰 운영의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